

'50승 선착' KIA, 이번 주에도 2위 삼성 폭격할까

16~18일 삼성전·19~21일 한화전

시즌 70.6%·한국시리즈 58.4%
전반기 1위 이어 우승 확률 상승

'척추 피로골절' 윤영철 변수
최원준, 타선서 공수주 맹활약



2024시즌 후반기에 돌입한 KIA타이거즈가 본격적인 우승 레이스를 시작한다. 전반기

선두에 이어 50승 고지 선착까지 열두 번째 왕좌에 오르기 위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끊이지 않는 부상 변수를 이겨내는 것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KIA는 지난주 LG트윈스와 주중 원정 3연전을 씩씩이한 뒤 SSG랜더스와 주말 홈 3연전에서 2연패에 빠지며 루징 시리즈를 안았다. 그러나 마지막 맞대결에서 승리를 챙기면서 체면치레를 했다.

이 사이 KIA는 가장 먼저 50승 고지에 오르는데 성공했다. KBO 리그가 단일 리그로 진행된 1989년 이후 35시즌(1999·2000년 제외)간 50승 선착 구단의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은 24회로 70.6%, 한국시리즈 우승 확률은 20회로 58.8%에 이른다.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KIA	89	52	35	2	0.598	-
2	삼성	90	48	40	2	0.545	4.5
3	LG	92	48	42	2	0.533	5.5
3	두산	92	48	42	2	0.533	5.5
5	SSG	90	45	44	1	0.506	8
6	NC	87	42	43	2	0.494	9
7	KT	89	41	46	2	0.471	11
8	한화	88	38	48	2	0.442	13.5
9	롯데	85	36	46	3	0.439	13.5
10	키움	86	37	49	0	0.430	14.5

하지만 선발진에 또다시 부상이 발생하며 변수를 맞았다. 지난 13일 SSG전에 선발 등판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자진 강판된 윤영철이 최초 검진에서 요추 염증 진단을 받았으나 두 차례 추가 검진에서 척추 피로골절 진단을 받으면서 최소한 달 이상을 결장하게 됐다.

타선에서 최원준이 맹활약을 보이고 있는 것이 위안이다. 최원준은 지난주 여섯 경기에서 타율 0.478(23타수 11안타)로 4타점과 8득점을 생산했다. 볼넷 네 개와 사구 한 개, 도루 세 개도 얻어내며 공수주에서 고른 활약을 보였다.

●삼성전, 2위 상대 강세 잇는다
삼성라이온즈는 지난주 우천 취소로



양현종

NCD아노스와 후반기 첫 경기를 건너뛴 뒤 2연승을 달렸다. 이어 두산베어스에게 2승 1패로 연속 위닝 시리즈를 챙기며 4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

승차가 5경기에서 4.5경기로 좁혀진 상황이지만 삼성이 순위 반등을 이룬 것이 KIA에게는 오히려 호재일 수 있다. KIA는 삼성과 LG, 두산 등 올 시즌 유독 2위에 올라있는 팀을 만나면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김건국

KIA는 양현종과 알드레드, 황동하가 선발로 나선다. 양현종은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 세 차례 등판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3.18을 기록했다. 알드레드는 한 차례 등판에서 4.2이닝 4실점으로 고전했고, 황동하는 첫 선발 등판이지만 한차례 구원 등판에서 3.2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챙긴 기억이 있다.

삼성은 레예스와 코너, 백정현으로 이어지는 최상위 선발진을 가동한다. KIA

타선은 레예스와 한차례 맞대결에서 5이닝 5실점을 안기며 공략에 성공했다. 코너와 백정현에게는 각각 1경기에서 7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으로 고전했다.

●한화전, 선발 낮가림은 없다

한화이글스는 지난주 키움히어로즈와 LG트윈스에 모두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를 떠안았다. 최근 3연승 루징 시리즈로 후반기 들어서는 분위기 반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2승 4패에 그쳤음에도 순위는 9위에서 8위로 한 단계 상승하는 행운을 얻었다. 반면 KIA와 승차는 11.5경기에서 13.5경기로 더 벌어지면서 가을야구권과 격차도 벌어진 상황이다.

KIA는 김건국과 네일, 양현종이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한다. 이범호 감독은 부상으로 이탈한 윤영철의 대체 선발로 김건국을 내고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투수를 붙일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한화는 김기중과 와이스, 바리아가 선발 등판할 차례다. 첫 경기에서 5선발이 격돌한 뒤 주말에는 1선발과 2선발이 나란히 출격하는 그림이다. KIA는 김기중과 와이스와의 첫 만남이다. 바리아와는 한차례 맞대결에서 5.2이닝 4실점(3자책점)으로 패전을 안겼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홍명보 “외국인 코치 선임, 감독직 수락 조건”

코치 선임 위해 스페인 등 유럽 출장
“역할 세분화로 전문성 극대화할 것”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이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한 유럽 출장에 앞서 입장 표명과 함께 향후 계획을 밝혔다. 외국인 코치 선임이 대한축구협회 측의 요청이 아닌 자신이 제시한 조건이라는 것.

홍명보 감독은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유럽 출장을 출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적으로는 국가대표팀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출장을 먼저 떠나게 된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양해를 요청하는 동시에 이번 유럽 출장의 목적을 설명했다. 국가대표팀 코치진에 외국인과 한국인을 적절히 안배할 계획으로 먼저 외국인 코치를 물색하겠다는 의향이다.

그는 “외국인 코치 선임은 제가 이임생 위원장에게 수락 조건으로 넣었다. 먼저 요청한 부분”이라며 “미팅을 통해 축구에 대한 철학과 비전,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도 등을 직접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현대 축구의 핵심인 분업화, 코칭스태프를 얼마나 세분화 시켜 전문성을 극대화하느냐가 제 몫”이라고 말했다.

코칭스태프 구성 순서에 대한 계획도 함께 밝혔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유럽 지도자들과 미팅을 진행해 먼저 외국인 코치를 선임한 후 귀국해서 한국인 코치까지 인선 과정을 마칠겠다는 구상이다.

홍 감독은 “일단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에서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명단을 받았고, 미팅 가능한 지도자들과 경력에 충분한 인원을



홍명보 선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한 유럽 출장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시

추렸다”며 “한국인 코치의 경우 검토 단계다. 외국인 코치의 기본적인 구성을 지켜보고 귀국해서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고, 협회와 계속 구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칭스태프 구성을 마무리한 뒤의 최종적인 목표는 국가대표팀을 강팀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국가대표팀만의 문화를 정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는 “한국을 어떻게 강한 팀, 좋은 팀으로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많은 걱정과 기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 인생 마지막 도전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국가대표팀은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부터 열까지 바꿀 수 없지만 경기 외적인 부분은 금방 바뀐다.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K리그 100경기' 이정호, 팬 선물 티셔츠 입고 등장

지난 14일 인천전서 착용·지휘
머플러·스티커 등 기념상품 완판



K리그 통산 100경기 지휘봉을 잡은 이정호 광주FC 감독이 팬이 선물한 티셔츠를 입고 경기장에 나서며 기록을 자축했다. 경기 결과에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기념상품이 완판되며 이 감독의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는 모습이었다.

이정호 감독은 지난 1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23라운드 홈경기에서 앞서 노란색 티셔츠를 착용한 채로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티셔츠는 지난달 15일 김천상무FC와 17라운드 홈경기 직후 관중석에 있던 팬이 이 감독에게 건넨 것으로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을 결합한 '호슨(호버지+심슨)' 캐릭터 처가 그려졌다.

이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경기 중에도 이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수단을 지휘했다. 티셔츠 색상이 노란색과 자주색이 섞인 홈 유니폼 색상과 겹쳐 빨간색의 여벌을 미리 준비했지만 심판진과 경기 감독관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그대로 경기에 나섰다.

비록 광주는 이날 인천에게 0-2로 패배했지만 이 감독은 팬들을 향해 미안함과 함께 고마움을 전달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더 큰 환호를 받았다.

이 감독은 김천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선물을 받아서 바로 입으면 팬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았다”며 “저랑 닮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든다. 이 티셔츠를 입고 한 경기를 치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는데 K리그 통산 100경기 기념식이 열린 이날 실행에 옮겼다.

이날 사전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이 티셔츠가 잘 팔렸으면 좋겠다. 구단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광주는 제가 처음 감독직을 맡은 팀이다. 100경기를 소화하면서 힘든 과정이었지만 선수들도 바뀌고 구단도 바뀌고 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고 팀을 먼저 생각하는



광주FC 이정호 감독이 지난 1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23라운드 홈경기에서 팬이 선물한 티셔츠를 입고 필드를 응시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마음을 내비쳤다.

또 “이 티셔츠를 입은 것은 팬들과 약속한 부분이고, 구단에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해보겠다는 의미”라며 “K리그 감독이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데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저를 바라보고 프로를 꿈꾸는 경력 없는 지도자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광주 구단은 서포터스 협업을 통해 이 티셔츠에 K리그 100경기 기념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두 가지 색상의 티셔츠를 비롯해 머플러와 마스크 테이프, 스티커 등 기념상품을 출시했고, 판매 개시 2시간여 만에 완판을 이뤘다.

한규빈 기자